



제709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월 18일)

조선 전기 도자기 문화

이정인, 304호 분청사기 · 백자실 18:00~18:30

조선 전기인 15~16세기는 국가 체제의 정비와 함께 새로운 사회상이 정착되어간 시기로, 도자기 문화에도 이 같은 시대적 분위기가 반영되었습니다. 분청사기와 백자의 등장은 당시 시행된 국가적 차원의 제도 아래에서 그 역할과 특징이 부각되었습니다.

분청사기는 회청색 그릇의 표면에 흰 흙을 다양한 방식으로 입혀 장식한 도자기를 학술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크게 일곱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4세기 후반 고려의 상감청자 영향으로 시작해, 15세기에서 16세기 중엽까지 다채로운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분청사기는 특히 나라의 재정 유지를 위한 세금인 공물貢物의 하나로서 왕실과 중앙 관청에서 쓰기 위해 전국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 태조 원년(1392)에 시행된 공납제에 따라 지방의 토산물이었던 도자기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사용처인 중앙 관청의 명칭, 생산한 지역, 나아가 제작한 장인의 이름, 각종 숫자까지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세종 임금 때 도자기를 생산한 전국의 도기소와 자기소 위치와 개수, 상·중·하로 분류된 품질 조사 등의 정보 수집으로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한편 백자는 성리학적 유교를 기반으로 건국한 조선 사회의 이념에 부합하는 도자기였습니다. 깨끗한 순백색의 빛깔과 단정한 형태, 과하지 않은 장식은 여러 규범과 의례를 갖추어 절제하는 삶의 태도가 요구된 조선 사회의 분위기에 적합한 그릇이었습니다. 세종 연간(1418~1450)에는 왕실의 전용 도자기로 쓸 만큼 우수한 백자가 제작되어 1467~1468년 무렵 수도인 한양 부근의 경기도 광주廣州에 나라가 직접 운영하는 관요官窯가 설치되어 전문적으로 백자를 생산했습니다. 왕에게 소용되는 진상품과 식사를 담당한 사옹원司饗院이 백자 생산을 감독, 관리해 이 관요는 ‘분원分院’이라 불렀습니다. 관요의 운영은 조선 전기 도자기 문화가 분청사기에서 백자 중심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어 점차 전국의 도기소와 자기소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제작되던 분청사기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요에서는 청화백자와 철화백자 등 고급 백자 생산으로 이어지며 조선말까지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조선 전기의 도자기 생산과 관리는 공납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국의 도기소와 자기소, 그리고 왕실 그릇으로 채택된 백자를 생산하기 위한 분원 설치라는 두 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전<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12)

- 어람御覽의 품격: 어람용 의궤와 분상용 의궤 -

임혜경,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의궤儀軌는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의 중요한 행사가 끝난 후 그 전 과정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은 기록물입니다. 3부~9부를 만들었는데, 그 중 1부는 왕이 읽어 보도록 올리고, 나머지는 관련 업무를 맡은 관청이나 실록實錄 같은 국가 기록물을 보관하는 사고史庫로 보냈습니다. 왕에게 올린 것을 어람용,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한 것은 분상용이라고 합니다. 외규장각 의궤는 몇 권을 제외한 대부분이 왕을 위해 만든 어람용입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을 위해 특별히 만든 책입니다.

어람용 의궤는 초록색의 고급 비단으로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흰 비단을 마련해서 제목은 쓴 후 표지에 붙였습니다. 표지와 내지는 겹쳐서 구멍을 뚫은 후 곁에 반짝이는 놋쇠 판을 대고 못을 박아 고정하였습니다. 놋쇠 판은 변철이라고 하고, 못은 박철이라고 합니다. 박철은 다시 국화 꽃잎 모양의 장식을 덧대어 꾸몄습니다. 일반적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마감입니다.

분상용 의궤는 행사 진행을 담당하는 관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 관청에 나누어 준 책입니다. 중요한 국가 행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종이로 만들어 실로 묶는 보통의 책보다 격을 높였지만, 어람용 의궤에 비하면 장식이 생략되어 검소하고 실용적인 모습입니다. 표지는 붉은 색으로 물들인 삼베로 만들었고, 제목은 표지에 먹으로 썼습니다. 변철과 박철로 엮은 것은 동일하지만 놋쇠가 아니라 일반적 쇠로 만들어서 투박한 모습입니다. 국화동 장식도 없습니다.



그림 1. 『장렬왕후준승도감의궤』 어람용



그림 2. 『장렬왕후준승도감의궤』 분상용



그림 3. 『헌종대왕국장도감의궤』 어람용



그림 4. 『헌종대왕국장도감의궤』 분상용

지도의 나라, 조선을 만나다

백승미, 119호 조선III실 19:00~19:30



그림1. 동국대지도, 정상기
원작, 1755~1767년

1402년 조선 건국 10년이 되는 해, 조선 왕조는 동아시아 최초의 진정한 세계지도라 일컬어지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를 제작합니다. 비록 원본은 사라지고 필사본(일본 류코쿠 대학 소장)만 남았지만, 이 지도는 중국 원나라에 알려진 유럽, 아프리카, 인도에 대한 지리 지식을 담은 지도로,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기록 중 하나입니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 속에서 문명의 계승자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했던 조선 왕조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조선은 가히 ‘지도의 나라’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지도 제작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지도 제작과 지리지 편찬 사업 외에도 지리 정보에 관한 활발한 관심은 계속 이어졌으며, 18세기 이후에는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8세기 중엽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대지도>는 우리나라 전국지도의 사본寫本으로 그의 ‘동국대지도’ 원본에 가장 가까운 지도입니다. 오늘날 원본은 전하지 않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이 지도는 그의 지도를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국대지도>는 이전 시기의 지도를 혁신시킨 새로운 지도였고, 동시에 이후 우리나라 전통지도의 결정판인 <대동여지도>의 탄생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만곡부를 사실에 가깝게 그려내어, 평안도와 함경도의 지형이 정확해졌고, 비로소 국토는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리척百里尺이라는 축척을 고안하여 활용함으로써, 지도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조선지도 제작의 전통 속에서 김정호는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 전통을 집대성하며,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라는 기념비적인 지도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근대 지도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상세하고 실용적인 이 지도는 22책 위에 방대한 국토를 펼쳐 한눈에 살피게 합니다. 정교한 기호를 활용한 절첩식의 이 지도에서 우리는 지도 사용자를 지극히 배려한 김정호의 남다른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조선의 지도는 상당 부분 소실되고, 일부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지도는 오랜 시간 축적하며 이어진 조선의 지도 제작 전통과 저력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세밀한 지도 속 이야기들은 세상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관점, 시대가 추구한 가치와 욕망,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지향했던 치열한 고민에 이르기까지 지난 역사를 들여다보는 귀중한 창이 되어줍니다.



제709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월 18일)

나눔의 가치를 발견하다

김혜경, 209호 기증 I 실 19:00~19:30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증해주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 함께 나누고자 상설전시관에 기증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하여 지난 12월에 문을 연 ‘기증 I 실’은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기증관 개편 사업의 첫 결과**입니다. 이 전시실은 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올해 하반기에 완성될 기증관의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기증관 개편의 취지는 모든 세대의 관람객이 편안하게 찾아와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눔**’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새롭게 문을 연 ‘기증 I 실’은 기증품을 감상하며 설 수 있는 곳, 기증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 영상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시실에서 기증자의 나눔의 정신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증자와 기증품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기억을 더해가도록 하였습니다.

전시실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나눔의 서재**’는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기증품을 감상하는 라운지와 기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아카이브로 구성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200여 점에 달하는 기증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하여, 기증품이 가진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마련한 아카이브에서는 기증자와 기증품 정보, 기증자가 문화재를 만나게 된 계기부터 기증을 결심하기까지의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다큐 영상, 기증 관련 신문 기사 등을 편안하게 앉아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공간은 ‘기증, 기억을 나누다’와 ‘**나눔의 길**’로 이어집니다. ‘기억’에 초점을 맞춰 풀어낸 ‘**기증, 기억을 나누다**’에서는 기증자들이 문화재를 만나고 사랑하게 된 기억, 문화재 전문가와 관람객들의 기증에 대한 생각을 들어봅니다. ‘**나눔의 길**’에서는 역대 수많은 기증자의 이름과 어록을 실감형 맵핑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기정이 기증한 그리스 투구**’ 전시에서는 1994년 손기정 선생이 기증한 그리스 투구를 집중 조명하여 투구에 담긴 기억과 나눔의 가치를 살펴봅니다. 특히, 투구에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내년에 완성될 기증 전시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를 미리 살펴보는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